

http://dx.doi.org/10.17703/JCCT.2023.9.4.67

JCCT 2023-7-8

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및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Adult Dementia Knowledge, Fear of Dementia, and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on the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신은희*, 이해경**

Eun-Hee Shin*, Hyea-Kyung Lee**

요약 본 연구는 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및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충남,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19~64세 성인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연구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의 치매 지식과($p=.055$) 치매 두려움은($p=.302$)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beta=.329, p<.001$)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매의 이해와 치매관리사업,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예방 건강수칙, 치매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 치매예방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증진프로그램 등 국가의 치매 예방 홍보 및 국가 차원의 대응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치매 예방행동을 실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주요어 : 성인, 치매 지식, 치매 예방행위, 치매 예방교육, 치매 두려움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adult dementia knowledge, fear of dementia, and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on the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65 adults aged 19 to 64 living in Chungnam and Chungbuk,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collected research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adult dementia knowledge ($p=.055$) and dementia fear ($p=.302$) were found that the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and the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beta=.329, p<.001$)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understanding of dementia and dementia management projects, early screening for dementia and health guidelines for dementia prevention, chronic disease management for dementia prevention, exercise for dementia prevention, healthy eating for dementia prevention, and cognitive enhancement for dementia prevention In addition to the national dementia prevention publicity and national response efforts such as program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mentia prevention program centered on the community to practice the correct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and provide sufficient opportunities to prevent it.

Key words : Adults, Dementia Knowledge, Dementia Prevention Behavi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Fear of Dementia

*정회원,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5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1일

Received: May 3, 2023 / Revised: May 20, 2023

Accepted: July 1, 2023

**Corresponding Author: lee-hk1214@hanmail.net

Dept. of Nursing, Jungwon Univ, Korea

1. 서론

우리나라의 2021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6.5%이며,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화사회로의 변화 추세는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치매 유병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뇌 질환에 따라 치매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를 현재 5천 500만명으로 추산하였으며, 2030년에는 40% 증가한 7천 800만명, 2050년에는 1억 3천 90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과 노년기 부양 가치관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인해 치매 질환에 대한 사회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후기 노인 증가로 치매 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무자녀 노인 증가, 자녀 수 감소, 가족 내 돌봄 기능 감소, 혼자 사는 노인 증가 등의 변화는 치매 환자에 대한 공식적 보호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3].

치매 치료와 돌봄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와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치매 관리비용으로 2019년에는 연간 총 16조 5천억원이었고, 이는 2050년에는 103조 1천억원 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4].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의 치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시작으로, 2011년 치매관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현재 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2차(2013~2015), 3차(2016~2020) 종합계획이 수립 및 추진되었고, 2021년부터는 '제4차 치매 관리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약 10년간의 치매 정책 추진 과정 중 '치매국가책임제'(2017년 발표)는 치매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치매 환자와 가족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강력한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5].

우리나라 국민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저연령층과 비교하여 중장년층은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슬픔 등의 정서적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6]. 치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억력 저하 등을 경험한 노인일수록 기억력 저하가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 이와 같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고정관념 및 두려움을 갖는 것은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여 조기 치료하는 데 있어 방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우울과 스트레스 및 불안을 높여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유병률을 높일 수도 있다[8,9].

그러나 치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지게 되며, 이러한 지식 부족은 지식 부족 자체로도 문제가 있으나 질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함으로써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따라서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치매 예방수칙 3.3.3' (운동, 식사, 독서는 즐기고 흡연, 음주, 뇌손상은 금하는 수칙)을 마련하여[11] 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이 치매를 위한 예방 실천 정도는 42점(100점)이고[12], 치매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비율은 33.5%로 나타나[13] 치매 극복을 위한 예방 활동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치매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 예방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또한 치매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교육 요구도가 높았다[15]. 교육요구도는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내용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육요구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내용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치매 예방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및 개인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치매 예방교육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치매 예방교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치매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및 대상자에 따른 교육요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수행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14].

성인은 가정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상자로서, 사회적 책무 및 가족 부양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노년을 앞두고 건강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치매에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치매 예방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므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14].

그러나 치매와 관련된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가 다수이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14,16,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와 예방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성인의 치매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설계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19세부터 64세까지의 남, 녀 성인으로 인지기능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이며, 치매나 정신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자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대상자는 충남,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이다. 2022년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장인의 경우 보건관리자의 허락 하에 직접 방문하여 위와 같은 대상 기준에 맞는 자를 편의 표집하였고, 학생의 경우 해당 학과장 교수에게 의뢰하여 편의 표집하였다. 주부 및 무직의 경우는 종교 단체(교회, 절 등)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는 129명이 결정되었고 탈락율을 고려하여 27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중 부정확한 응답을 하였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는 5부를 제외한 265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치매 지식

치매 지식 측정 도구는 황선영과 장금성이[18]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이며,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배점하였다. 황선영

과 장금성[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 이다.

2) 치매 두려움

치매 두려움은 French et al.[19] 개발한 Fear of Alzheimer's Disease Scale(FADS)로 Moon et al.[20]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형 치매두려움 도구 K-FAD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4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FADS의 Cronbach's α 는 .94, K-FADS에서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다.

3) 치매 예방행위 의도

치매 예방행위 의도 도구는 최원희 등이[21]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7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원희 등의[21]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4) 치매 예방교육 요구

치매 예방교육 요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선남과 임희수[1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방교육 요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선남과 임희수[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5$,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95$ 이다.

4. 자료분석방법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예방교육 요구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위해 설문지에 연구자의 이름과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항목은 사용하지 않았다. 대상자에게 설문지 작성 전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고, 언제든지 철회 및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39세 대상자가 170명(64.2%)로 많았고, 여자 대상자가 142명(53.6%)로 많았다. 고졸 이하가 166명(62.6%)였고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228명(86.1%)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은 대상자는 69명(26%), 조금 있는 대상자는 152명(57.4%), 없는 대상자도 44명(16.6%)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대상자가 36명(13.2%), 조금 알고 있는 대상자가 185명(69.8%), 잘 모른다는 대상자는 45명(17.0%)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M±SD
Age	19~39	170(64.2)	34.31±14.73
	40~64	95(35.8)	
Sex	Male	123(45.4)	
	Female	142(53.6)	
Education	≤High School	166(62.6)	
	≥College	99(37.4)	
Job	Yes	228(86.1)	
	No	37(13.9)	
Interest in Dementia	High	69(26.0)	
	Normal	152(57.4)	
	Low	44(16.6)	
Perceived knowledge about dementia	very well	35(13.2)	
	A Little	185(69.8)	
	Some	45(17.0)	
Information	Yes	206(77.7)	
	No	59(22.3)	

2.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

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는 Table 2와 같다. 치매 지식은 .52점(0~1), 치매 두려움 3.13점(1~5점), 치매 예방행위 의도 5.39점(1~7), 치매 예방교육 요구는 3.38점(1~5점)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

Table 2. Dementia Knowledge, Fear of Dementia, Intention to Dementia and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Needs of Subjects

Variables	M±SD	Range
Dementia Knowledge	.52±.12	0~1
Fear of Dementia	3.13±.72	1~5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on Behaviors	5.38±1.29	1~7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3.38±.79	1~5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예방교육 요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예방교육 요구를 살펴보면 성별, 교육 정도, 직업 유무, 치매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치매 정보를 접한 경험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관심의 경우 매우 많은 대상자와 없는 대상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3, p=.006).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예방교육 요구
Table 3.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t or F	p
Age	19~39	.76	.443
	40~64		
Sex	Male	-1.43	.154
	Female		
Education	≤High School	.65	.579
	≥College		
Job	Yes	.93	.458
	No		
Interest in Dementia	High	5.13	.006 (a>c)
	Normal		
	Low		
Perceived knowledge about dementia	very well	2.8	.621
	A Little		
	Some		
Information	Yes	.98	.326
	No		

4.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

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치매 지식과 치매 두려움 간에($r=.125, p=.043$), 치매 두려움과 치매 예방행위 의도 간에($r=.303, p<.001$), 치매 두려움과 치매 예방교육 요구 간에($r=.163, p=.008$), 치매 예방행위 의도와 치매 예방교육 요구 간에($r=.348, p<.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치매 지식과 치매 예방행위 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125, p=.120$).

표 4. 대상자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 및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Dementia Knowledge, Fear of Dementia, Intention to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and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Needs

Variables	Dementia Knowledge $r(p)$	Fear of Dementia $r(p)$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r(p)$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r(p)$
Dementia Knowledge	1			
Fear of Dementia	.125 (.043)	1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096 (.120)	.303 (<.001)	1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077 (.212)	.163 (.008)	.348 (<.001)	1

5. 대상자의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성인의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치매에 대한 관심과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의 3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치매 지식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p=.055$), 치매 두려움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302$), 치매 예방행위 의도는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14.3%($\beta=.329, p<.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

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908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01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태지수는 1.000~11.230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이 1.97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대상자의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
 Table 5. Factors influencing Demand for Dementia Prevention Education of Subjects

Variables	B	SE	β	t	p	R ²	F	p
constant	2.086	.244		8.54	<.001		10.83	<.001
Intention of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201	.037	.329	5.42	<.001	.143		

IV.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의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및 치매 예방행위 의도를 파악하고 치매 지식, 치매 두려움 및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치매 지식은 0.52점(0~1)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같은 결과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97점(0~1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8.17점(0~12)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보다 높은 지식 정도를 나타냈다[2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23] 4.17점(1~5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24] 0.61점(0~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치매 지식 점수가 본 연구대상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학위 과정 중 접하게 된 전공 지식 습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34세인 점을 고려할 때,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연구대상자의 치매 지식이 높은 이유로는 연령 증가에 따른 치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스스로 관심을 보임으로써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을 통해 지식을 습득했거나, 국내의 치매 예방 정책 사업으로 인한 치매 지식 전달 및 인식 개선 노력에 대한 효과임을 알 수 있다[14]. 따라서 다양한 대상자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 접근 방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매 두려움은 3.13점(1~5)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5] 3.21점(1~5)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6] 3.03(1~5)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이나 성인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치매두려움은 신체적 증상과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여 건강문제도 가져올 수도 있으며[27],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9]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두려움을 낮추는 것은 치매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치매 예방행위 의도는 5.38점(1~7)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19점(1~3)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21] 5.01점(1~7)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결과 중장년층이나 노인의 경우 치매 예방행위 의도는 비슷한 정도를 나타냈고, 치매 예방행위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에 대한 지식 부족이 치매 예방행위 수행의 장애요인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를 통해[25] 치매 예방행위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 지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예방교육 요구는 3.38점(1~5)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4.55점(1~5)으로 본 연구보다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28] 4.22점(1~5)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성인 대상 연구의 경우[14] 평균 연령이 60세였으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28] 연구대상자가 만 45세~64세인 점을 감안하면 치매 예방교육 요구는 젊은 연령의 성인보다는 중장년층의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 예방교육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 상 노화로 인한 발병율이 높고, 한 번 발병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삶의 질 저하 및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9]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는 응답이 43.2%로 많았으며, 얻고 싶은 정보의 유형은 치매에 대한 예방법이 73.8%로 매우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대책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매 예방에 대한 요구도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치매 예방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방법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14.3%($\beta=.329, p<.0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 지식이나 치매 두려움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4] 치매 지식과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30] 치매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 예방교육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질병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31] 다양한 대상자를 통한 반복연구를 통해 치매 지식이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치매 두려움이 클수록 치매 예방교육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32],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 두려움이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인을 살펴보면 성인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14,30] 평균 연령이 60세인데 반해 본 연구대상자는 평균 연령이 34세였다. 이처럼 노년에 가까운 대상자일수록 치매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치매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치매 두려움은 치매 지식이 낮을수록 높아진다는 연구결과[33]를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 지식이 60세 이상의 성인보다 치매 지식이 낮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치매 지식과 치매 두려움이 치매 예방교육 요구와의 상관관계나 영향요인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대상자를 통한 반복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연구는 거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치매 인식, 치매 태도, 노화 불안, 치매 두려움이 파악되었다[28].

치매예방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었고,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은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였다. 또한 치매 정보에 대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아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4]. 특히 치매 지식 부족은 행동의 변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치매 예방행동 변화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키는[7] 치매 지식 증가를 위한 국가의 개입과 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긍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28]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 막연한 치매 두려움을 방지하고 치매 두려움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개인 차원의 치매 예방 활동을 격려해야 한다[28].

또한 치매의 이해와 치매 관리사업,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건강수칙, 치매 예방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및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증진프로그램 등 국가의 치매 예방 홍보 및 국가 차원의 대응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올바른 치매 예방행동을 실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지식과 두려움,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성인의 치매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치매 지식과 치매 두려움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 다른 연구결과를 보였다. 또한 일부 성인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치매 예방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치매 예방행위 의도가 파악되었지만 비교 연구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1). 2021 Senior Statistics. <https://kostat.go.kr>
- [2] Data SOM.(2021.09.09.). WHO “Dementia patients on the rise worldwide” .Approaching 140 million by 2050.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49>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1).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dementia policy promotion system and research on strengthening measures.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200097>
- [4] Central Dementia Center. (2020. April). Estimated number of dementia patients aged 65 years or older in Korea is about 750,000, Central Dementia Center publishes ‘Korea Dementia Status 2019’. (pp. 2). Seoul.
- [5] Central Dementia Center. (2020. April). Korean Dementia observatory 2019. https://www.nid.or.kr/info/dataroom_view.aspx?bid=209. Seoul.
- [6] Central Dementia Center and Myongji Hospital. (2021. Decembe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recognition survey for dementia. <http://www.nid.or.kr/download>. Seoul.
- [7] S. Kim, K.A. Sargent-Cox, and J. Anstey,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and middle aged adults’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and dementia risk reduc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7, No. 1, pp. 1694-1703, 2015. doi: 10.1111/jan.12641
- [8] N.L. Batsch, and M.S. Mittelman, “World Alzheimer Report 2012: Overcoming the stigma of dementia [Internet]. London: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2012 [cited 2015 April 25]. Available from: <https://www.alz.co.uk/research/WorldAlzheimerReport2012.pdf>
- [9] A.J. Petkus, C.A. Reynolds, J.L. Wetherell, W.S. Kremen, N.L. Pedersen, and M. Gatz, “Anxiety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risk of dementia in older Swedish twins,” *Alzheimer’s & Dementia*, Vol. 12, No. 4, pp. 9-406, 2016. doi: 10.1016/j.alz

- z.2015.09.008
- [10]E.J. Kim, and J.Y. Jung,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lzheimer's Disease Knowledge Scale-Korean Ver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5, No. 1, pp. 107-117, 2016.
- [11]D.W. Lee, and S. J. Seong, "Korean national dementia plans: From 1st to 3rd,"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6, No. 5, pp. 298-303, 2018. doi:10.5124/jkma.2018.61.5.298
- [12]I. Cho, "Lifestyle behaviors for the prevention of Alzheimer's disease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2, pp. 455-468, 2019. doi: 10.22143/HSS21.10.2.33
- [13]S.O. Chang, Y.W. Lee, E.S. Kong, G. Kim, H. K. Kim, et al,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dementia screening in community-dwelling elderl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2, No. 2, pp. 134-144, 2020. doi:10.7475/kjan.2020.32.2.134
- [14]S.N. Park, and H.S. Lim,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Needs of Preventive Education related to Dementia in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4, 347-356. 2020. doi:10.14400/JDC.2020.18.4.347
- [15]E.H. Ha, and J.Y. Cho, "Analysis of Knowledge About, Attitude Toward, and Educational Needs for Dementia in Certified Caregiver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1, No. 1, pp. 108-118, 2015. doi: 10.5977/jkasne.2015.21.1.108
- [16]Y.H. Kim, and Y.C. Kwon, "The Effect Dementia Knowledge and Attitude on Dementia Preventive Behavior of Adul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3, pp. 9-17, 2020. doi: 10.17703/JCCT.2020.6.3.9
- [17]. E.J. Oh, Y.S. Cho, and K.O. Chang, "The Effect of Dementia Perception, Attitude of Dementia and Prevention Education Needs of Dementia on Fear of Dementia of among the General Public Officials in the Local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4, pp. 351-362, 2022. doi: 10.5762/KAIS.2022.23.4.351
- [18]S.Y. Hwang, and K.S. Jang., "A Study on the Levels of Dementia-related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among Nursing assistants Caring for Institutionalized elders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11, No. 3, pp. 378-388, 1999.
- [19]S.L. French, M. Floyd., S. Wilkins, and S. Osato, "The Fear of Alzheimer's Disease Scale: a new measure designed to assess anticipatory dementia in older adults," *Int J Geriatr Psychiatry*, Vol. 27, No. 5, pp. 521-528, 2012. doi: 1002/gps.2747
- [20]Y. Moon, H.J. Kim, H. Choi, S.I. Oh, and S.H. Han,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ear of Alzheimer's Disease Scale for the Assessment of Anticipatory Dementia," *J Korean Med Sci*, Vol. 29, No. 3, pp. 411-415, 2014. doi: 346/jkms.2014.29.3.411
- [21]W.H. Choi, Y.M. Seo, and B.R. Kim, "Factors Influencing Dementia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in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5, No. 2, pp. 138-146. 2019 .doi:10.14370/jewnr.2019.25.2.138
- [22]I.J. Cho, "Lifestyle Behaviors for the Prevention of Alzheimer's Disease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2, pp. 455-468, 2019. doi:10.22143/HSS21.10.2.33
- [23]M.J. Yun,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of Dementia, and Awareness of care giving for Elderly among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11, pp. 419-426, 2019 doi: 10.14400/JDC.2019.17.11.419
- [24]E.H. Ha,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Needs for Dementia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3, pp. 353-363, 2018. doi: 10.5762/KAIS.2018.19.3.353
- [25]H.S. Park, "Dementia fear and Dementia preventive behaviors of Elderly in the Community,"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020.
- [26]K.O. Chang, Y.S. Cho, and M. J. Kim, "Effects of Perception and Fear of Dementia on Dementia Attitude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4, No. 2, pp. 873-886, 2022. doi:10.37727/JK DAS.2022.24.2.873
- [27]F. Zeng, W.T. Xie, Y.J. Wang, H.B. Luo, X.Q. Shi, H.Q. Zou, Y.Q. Zeng, Y.F. Li, S.R. Zhang, and Y. Lian, "General public perceptions from five cities in China,"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Vol. 43, No. 2, pp. 511-518. 2015. doi:10.3233/JAD-141371
- [28]E.M. Yang, "Effects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on Dementia-Prevention Education Needs in the Middle-Aged-Mediating Effects of Aging Anxiety and Fear of Dementia-,"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29]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Survey on Dementia Awareness by the citizens of Seoul," Research report. Seoul Metropolitan: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2015.
- [30]J.S .Lee, "The Study on the Perception and Preventive education needs of Dementia -for the Middle and Old-aged Woman-,"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4.
- [31]E.J. Kim, and J.Y. Jung,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lzheimer's Disease Knowledge Scale-Korean Version," *Juo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5, No. 1, pp.107-117. doi:10.4040/jkan.2015.45.1.107.
- [32]M.K. Lee, and D.Y. Jung, "A Concept Analysis of Fear of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9, No. 2, pp. 206-219, 2018. doi:10.12799/jkachn.2018.29.2.206
- [33]Y.I. Park, J.S. Park, H.S. Yoon, N.H. Kim, and J.H. Chun, "Level and Related Characteristics of Phobia (Fear) for Dementia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4, pp. 829-839, 2017. doi:10.14257/AJMAHAS.2017.04.49
- [34]J.H Lee, and E.H. Le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Behaviors for the Promotion of Dementia Prevention-Verifying he Mediating Effect of an Attitude toward Dementia-,"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 20, No. 3, pp. 89-117, 2016. doi: 10.18397/kcgr.2016.20.3.89